주가	환율	금리
-8.83	-1.50	보합
1,238.71 (코스피지수)	957.70원 (원/달러)	5.04%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63.61	(-2.61)
다우(27일)	10,924.74	(-120.54)
나스닥(27일)	2,100.25	(-33.42)
닛케이	14,886.11	(-285.70)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35엔	(+0.07)
유로 달러 환율	1.2574달러	(-0.14)
3년만기 회사채	5.31%	(보합)
콜금리	4.21%	(+0.01)

"금호타이어 노조 현업 복귀하라"

광주·전남 경총 성명 발표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는 28일 금호타이어 파업과 관련, "노조측이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지난 20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 지난 27일 현재 이미 14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물론 22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조는 지난해 5년만에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선례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욕구를 자제하고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전자 프리미엄 가전 홈피 새단장

지펠+하우젠 통합… 다양한 생활정보 담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지펠(www.zipel.co.kr)과 하우젠(www.hauzen.com) 등 프리미엄 제품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28일 새로 선보였다.

통합사이트는 제품의 사양과 기능, 제원 등 기술적 정보 위주인 기존의 가전 홈페이지들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중심 콘텐츠로 삼고 있다.

에어컨과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하우젠 브랜드를 모아 놓은 하우젠 페이지의 경우 효과적인 에어컨 관리요령과 세탁기용 세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집먼지·집진드기 퇴치방법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또 주부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생활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해 '생활의 미학'이라는 코너를 마련, 각종 별미음식 조리법과 인테리어 지혜는 물론 생생한 생활속 이야기들을 주부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상권 분석 ⑩

금호지구는 행정구역상 서구 금호1·2동에 속하며 전형적인 주거형 상권이다. 상권의 형태는 상무중 앞 삼거리 금호지구 입구부터 마재우체국까지 남북으로 늘어선 1자형이며 범위는 약 40만8천여평에 달한다.

30~40대 소비층 '탄탄'
마재마을 최대상권 형성

금호지구

크게 '금호 1지구', '금호 2지구', '마재마을'등 3개 세부 상권으로 나뉘며 각 세부상권별로는 마재마을이 20만2천평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금호 2지구 14만8천평, 금호 1지구 5만8천평 순이다.

금호지구 전체 상권내 거주인구는 1만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7만여명으로 광주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평균 인구보다 많다. 하지만 상권이 간선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돼 응집력이 약한데다 각 상권별로 조성시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보다는 세부 상권별 부침이 심한 곳이다.

즉, 조성시기가 빠른 금호1지구→금호2지구→마재마을 순으로 중심 상권이 이동해 왔다는 얘기다. 90년대 초반에는 CBS광주방송 주변 음식점 등 상가들이 호황을 누렸으나 93년~94년 금호시영아파트 등 금호2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곳이 2000년까지 중심상권의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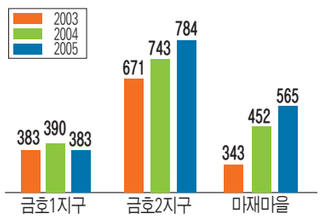
'간선도로 상권' 응집력 약해

2000년부터는 중흥·금호·대주 등 마재마을에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상가들이 조성되면서 금호지구 중심으로 부상해 현재까지 최대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심상권은 금호2지구와 마재마을의 경계인 '풍금사거리'로 풍금사거리 주변 상가의 경우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가가 1천만~1천100만원 수준이다. 도로변 상가에는 10평 기준으로 1천500만원 정도의 권리금도 있지만 대기수요가 있는 마재마을쪽 회재회관~미샤와 풍금사거리에서 금호지구대 사이 육교 양쪽 핵심상가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뜸한 편이다.

금호지구 상권은 최근 개통된 금호지구~서광주역간 6차선 도로 주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등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염주지구에 이어 90년대말 서구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잡았지만 인근에 상무지구가 조성되면서 왠만한 업종은 모두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지났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3년간 점포수 추이(단위:개)



금호2지구, 모텔골목 성인 PC방 등 입점

상무·풍암지구에 밀려 매출 다소 위축

더구나 올해 말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문을 열면 생필품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마재마을=아파트 7천803세대에 3만1천200여명의 배후인구를 바탕으로 금호지구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남양아파트와 서구문화센터 사이 상업지역이 핵심상권으로 대형마트, 은행, 병원, 사우나, 모텔,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영업중이다.

특히 집객능력이 높은 농협·기업은행·광주은행이 밀집해 있어 금호2지구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회재회관~미샤사이 길거리에 상설 노점상까지 설치돼 인근 상가의 매출증대 효과를 낳고있다.

또 종원팰리스빌 등 마재마을내 아파트 상가들도 30평형대에 사는 30~40대 젊은층의 탄탄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학원,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반면 화개초교에서 마재우체국사이는 학원 등 학교 앞 상가를 제외하고는 다세대주택과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음식점들도 길 건너 풍암지구 먹자타운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횟집 등 먹자골목 매출 쏠쏠

올해 입주예정인 진흥더블파크와 로렌시아 등 550세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종원팰리스빌과 대주파크빌 사이에 들어서면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2지구=아파트만 7천235세대에 2만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단위 영세민아파트와 20평형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이후 마재마을에 밀려 상권이 상당히 위축됐으나 풍금사거리에서 금호지구대사이 상권은 아직도 괜찮은 편이다.

양·한방 병원과 약국, 아동의류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낙지전문점과 횟집 등 수산물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매출도 쏠쏠하다. 최근에는 모텔골목에 성인 PC방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빈 가게를 찾는 대기수요도 많은 편이다.

모 공인중개사 대표는 "일부 업종은 아직도 장사가 그런대로 되는 편이지만 대다수 업종과 가게들은 전성기때인 2~3년전보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도 전성기에 비해 5~1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풍금사거리 세부상권

※다음상권분석은 문흥지구입니다